

강진군, 첫 온라인 청자 축제 성황리 폐막

‘찐튜브’·군 대표 SNS로 프로그램 참여...청자 10월 한달간 40% 할인 판매



이승욱 강진군수가 강진청자축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스마트 퀴즈쇼를 지켜보고 있다. <강진군 제공>

올해 처음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49회 강진청자 축제가 지난 7일 폐막식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강진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대구면 청자촌을 주 무대로 온라인 축제를 개최했으며 5개 분야 17개의 단위 프로그램을 구성해 강진군 대표 유튜브 채널 ‘찐 tube’를 통해 방영했다.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강진투어 힐링버스커, 강진 스마트 퀴즈쇼, 읍면 노래자랑 챌린지 등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으며 강진 명품청자와 특산물들을 전국에 소개하고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 인기를 얻었다.

약 한 달 동안 강진 유튜브 채널 누적 조회수 25만회, 강진청자축제 홈페이지 방문 2만회 등 총 온

라인 방문자가 30만명 이상을 기록했으며 축제 관련 영상 조회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청자 판매액이 8700여만원을 넘는 등 쾌거를 이뤘으며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와 강진청자쇼핑몰 및 강진청자판매장에서 강진 명품 청자를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축제는 비대면 온라인 개최를 채택해 지난해 코로나로 취소된 청자축제의 명맥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으며 청자축제를 공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더 많은 관람객들이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축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됐기를 바란다”며 “온라인 강진청자축제는 막을 내렸지만 10월 한 달 간 강진명품청자 40% 할인은 계속되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공모 장성군 8개팀 선정 ‘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1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공모’에서 장성군의 8개팀이 선정됐다. 단일 시·군 가운데 전국 최다 기록이다.

관광두레사업은 관광두레PD와 주민공동체가 협력해 지역 고유의 관광사업체를 창업·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에서는 올해 처음 지역 청년 정지은씨가 관광두레PD로 선정됐다.

특히 구성원 대부분이 젊은 연령층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선정된 업체 가운데 6개 팀의 구성원이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39세 이하인 청년 주민사업체다.

선정된 주민사업체들은 앞으로 5년간 ▲역량 강화 ▲신상품 개발 ▲경영컨설팅 및 홍보 마케팅 ▲파일럿 사업 등을 지원받는다. 지원 규모는 사업체 당 최대 1억1000만원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군 ‘말 산업 활성화’ 말뿐이었다

2014년 7500만원 들여 5필 구입...1년 단위로 위탁 관리
3마리 폐사·출산 등 모든 채 위탁비 지급...환수조치 진행
축산사업소장 4개월 공석·업무 이원화 등 허술 행정 비난

장흥군이 수 천 만원을 들여 소유하고 있는 말 세 마리가 3년에서 7년에 걸쳐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장흥군은 말 폐사를 숨기고 있다가 한 주민이 제보하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뒷북 행정’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군은 지난 2014년 1월에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전문 승용마 4필(1946만원), 일반 경주마 1필(1692만원) 등 5필을 경매과정을 거쳐 총 7500여 만원을 들여 군비로 구입했다.

이 가운데 1필이 구입한지 1년여 만인 2014년 12월 30일에 폐사한데 이어 2016년 6월 3일에 또 1필이 폐사하고 2년이 지난 2018년 1월에 1필이 폐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말 5마리를 구입후 시설 관리업체인 J승마교육원에 1년 단위로 위탁(1필당 월 51만원)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군은 위탁한 행정마에 대한 수시 점검을 하면서도 행정마 폐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위탁업체에 고박고박 위탁관리비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 살아있는 일반 경주마 어미가 지난

2018년 2월에 망아지 1필이 출산했다는 사실도 올 6월 1일에서야 위탁업체의 뒤늦은 신고로 인지했다.

군은 부랴부랴 올 7월 해당 J관리업체에 위탁해 지 통보와 함께 부당지급된 위탁비용 2547만원 가운데 망아지 사육비용(1360만원)과 폐사보험금 300만원을 제외한 1487만원을 환수청구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군의 말 관리 부실은 업무를 총괄하는 축산사업소장이 4개월째 공석인데다 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직원이 팀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또한 승마체육공원관리는 스포츠산업단에서, 말 관리는 축산사업소에서 맡는 등 업무가 이원화로 돼 있는 점도 원인으로 허술한 행정체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함평군,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보행 교육’

‘따뜻한 함평’ 맞춤형 복지 실현

함평군이 지역 내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위해 나섰다.

함평군은 11일 세계 시각장애인협회가 지정한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시각장애인과 안내인을 대상으로 ‘흰지팡이 기초 보행 교육’을 실시했다.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교육은 시각장애인의 자립심과 성취감을 고취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흰지팡이’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시각장애인 전용 보행 보조기구로 노약자 또는 일반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지팡이와는 구별되며, ‘도로 교통법’에는 흰색 지팡이를 소지한 시각장애인

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

전문 보행 지도사를 초청해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안내인과 함께 흰지팡이를 활용해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장애인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함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시, 치매 산림치유 활성화 추진

전남산림자원연구와 업무 협약...산림치유팜 효과 검증

나주시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치매노인 산림치유 프로그램 활성화에 나섰다.

나주시는 최근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윤상식 나주시보건소장, 오득실 연구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소장 오득실)와 치매예방·관리 산림치유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 상생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한 치매 특화 산림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빛가람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연계 협조 ▲산림치유자원 및 프로그램 활용 ▲산림치유팜(Farm) 운영 및 효과검증 등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모집과 운영을, 연구소는 산림치유 팜 등 프로그램 운영 효과를 검증하



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나주시 보건소는 치매예방군 8가구, 경증치매환자군 8가구 등 총 16가구를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LX, 국민생활의 플랫폼이 되다

스마트 지적측량, 안전정보 제공, 스마트시티 구축에 이르기까지
LX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함께 합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 인천지역본부
www.lx.or.kr